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유 영 란
이화여자대학교

이 지 연[†]
인천대학교

이 연구는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는 성인 애착(불안애착과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의 4년제 5개 대학의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 애착과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이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모형과 그 모형에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추가한 모형을 비교하여서는 후자가 적합도가 더 좋았으나 두 모형의 적합도 간에 근소한 차이만 나타나므로 추후 구조적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어 : 성인애착,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 이지연은 인천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고, 유영란은 이화여대 심리학과 졸업

† 교신저자 : 이지연, 국립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인천시 도화동 177

E-mail : becoming@incheon.ac.kr, Tel : 032-770-8160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대처방식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처 방식은 각 개인이 지닌 성격의 특성과 자신이 처한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고통을 해결하고 감당하려 하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전문적 도움을 선택하게 된다(Hinson & Swanson, 1993; Lin, 2002). 한 개인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적 도움을 고려하기까지는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유성경, 이동혁, 2000). 따라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를 더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Komiya, Good, & Sherrod, 2000).

그 가운데 애착이론은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 틀로써(Lopez & Brennan, 2000), 대인관계 문제와 환경 전반에 관련한 문제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Mallinckrodt, 2000). Brennan과 Clark, Shaver(1998)에 의하면 성인 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개인차에 영향을 준다(Lopez, Melen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애착 체계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하는데(Bowlby, 1973),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 경험 및 대인 관계 양상, 혹은 갈등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이경희, 2001; Bartholomew & Shaver, 1998; Collins, 1996). 개인이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혹은 무관심한 존재로 생각하는 불안정 애착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Wallace & Vaux, 1993).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안정애착인 사람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지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Priel & Shamai, 1995).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 Erve, 1991).

국내 연구에서도 애착 수준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간의 연구들(김수진, 2001; 이경희, 2001; 박은영, 2004)이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회피애착은 사회적 지지요청 및 지지 받기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고, 불안애착은 사회적 지지요청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는 회피애착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 요청을 적게 하고 사회적 지지도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불안애착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도움과 지지의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arason, Pierce, & Sarason, 1990). 이 기대수준은 이전에 나쁜 경험을 한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노출하기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은 특히 불안이 높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 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fronzo, Panzarella, & Butler, 2001; Hazan & Shaver, 1987; Kobak & Sceery, 1988).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안정 애착의 사람들보

다 털 지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애착이론과 일치하며, 애착이 자신의 정서경험이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Sarason 등(1990)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도움 요청 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불안애착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불편감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하게 된다(Kobak & Sceery, 1988; 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Pietromonaco & Barrett, 2000). 회피애착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Kobak & Sceery, 1988; 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Pietromonaco & Barrett, 2000). Lopez 등(1998)의 연구에서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회피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작동모델을 가진 사람들보다 전문적 도움 요청하는 데 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불안애착이 강할수록,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에게 편안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Dozier, 1990), 이러한 자기 개방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Hinson & Swanson, 1993; Vogel & Wester, 2003). 요약하면, 회피애착은 사람들이 상담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요소가 되고, 반면에 불안애착은 더 쉽게 전문적 도움을 찾게 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성인 애착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애착 관련 논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애착의 차원인, 불안과 회피는 우울증, 불안(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Wei, Mallinckrodt, Russel, & Abraham, 2004), 부정적 정서(Simson, 1990), 정서적 불편감과 긴장(Collins, 1996; Lopez, Mitchell, & Gormely, 2002)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심리적 불편감을 지각하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게 된다. 증상에 대해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을 더 많이 고려하고(Robbins & Greenley, 1983),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Norcross & Prochaska, 19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 기관을 찾는 경향이 높고(Goodman, Sewell, & Jampol, 1984), 전문적 도움을 받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불편함을 줄여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도움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지각이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찾게 하는 의지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심리적 불편감을 먼저 호소하고, 불편감에 대한 호소는 도움 추구를 예견하게 한다(Cramer, 1999). 그러므로 도움 추구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증상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Pescosolido & Boyer, 1999). Powell과 Kotschessa(1995)는 도움 추구에 대한 결정은 자

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없다는 개인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기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불편감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더욱 악화되고, 이는 전문적 도움 요청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즉,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Vogel과 Wei(2005)는 심리적 불편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불안애착은 심리적 불편감과 도움 추구하고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회피애착은 자신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부인하고, 도움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이는 심리적 불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불편감이 커지고, 결국에 이는 도움 추구 의도에 정적으로 관련된다.

전문적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전히 낮설어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잠재적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Vogel과 Wei(2005)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용해서 연구를 확대해 보고자 하였다.

전문적 도움과 관련한 연구와 애착연구에서 주요 변인들 중에 하나인 자기은폐는 한국인을 이해하는 개념의 틀로서 제안되고(이규태, 1983; 조궁호, 2003) 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려는 자기은폐 경향이 불안정 애착과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불편감 사이에 매개하는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 변인들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 Nachshon, 1991). 자기은폐는 많은 심리 내적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잠재적 내담자의 가장 사적이고 괴로운 경험들에 대한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불안애착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은폐 경향이 강하다는 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 Nachshon, 1991), 자기 개방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Hinson & Swanson, 1993; Vogel & Wester, 2003). 그리고 회피애착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기은폐는 전문적 도움 추구의 가능성을 낮추고, 자기은폐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Vogel & Wester, 2003).

그러나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하여서는 그 영향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는다.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부정적이지만, 실제적인 상담 요청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사적인 정

보를 드러내야 하는 상담 과정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만, 이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 요청의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Cepeda-Benito와 Short(1998)는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자기은폐 경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담 추구 가능성이 높음을 보증한다는 징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은폐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자기은폐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간에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Larson & Chastain, 1990). 또,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도움 추구 태도, 지각된 도움 추구 가능성 간의 관계를 경로 모형을 통해 탐색한 Cramer(1999)의 연구에서 자기은폐와 사회적 지지 사이에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모형은 기각되어,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손상된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기은폐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상의 형성과 관련한 내적 작동 모델에 영향을 받은 자기은폐 변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에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이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Vogel과 Wei(2005)가 제안한 매개 모형(성인애착과 도움 추구 의도 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의 매개역할에 자기은폐 변인을 추가하여,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가 성인 애착(불안 애착과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인천에 있는 5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다양한 전공의 남녀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설문 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3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167명(51%), 여학생은 163(49%)명이었고 이성교제경험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59명(78%), 없는 사람은 71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로는 250명(75%)의 인문/사회계열 학생, 54명(16%)의 자연/공학계열 학생, 26명(9%)의 예체능계열 학생이었다. 연구에 표집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SD = 2.18$)이며 범위는 만18세부터 만29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2세($SD = 2.49$)이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1세($SD = 1.73$)이었다.

측정도구

성인의 낭만적 애착 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S)

성인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Brennan과 Clark, Shaver(1998)이 개발한 성인의 낭만적 애착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S)를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0)의 논문에서 사용된 것을 두 명의 이중 언어 사용자와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울 측정하는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한다. 역채점 문항 10개가 포함되어 있다. 회피 차원 문항의 예는 '나는 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이고, 불안차원 문항의 예는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이다. 각 차원의 점수는 18~90점 사이에 있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주축분해사용)을 하여, 각 차원의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크기별로 순위를 정하여 각각 3개의 표시변수에 할당하였고, 할당된 문항들의 묶음 점수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는 회피 차원과 애착 차원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4와 .91로 보고 되고 있고, 2회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70(3주 간격)와 .71(6개월 간격)이었다. 정태연 등(2000)의 논문에서는 .85로 보고 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회피와 불안 차원의 Cronbach' α 는 각각 .89와 .86이었다.

심리적 불편감 척도(Symptom Checklist: SC)

심리적 불편감은 Hopkins Symptom Checklist와 Stouffer 등(1950)의 Psychosomatic Complaints Scale을 포함하여 이전 질문지들의 문항을 기

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Bartone과 Ursano, Wright, Ingraham(1989)이 개발한 증상 체크리스트(Symptom Checklist: SC)를 신연희(2005)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C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정신과적 증상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요인 분석 결과 우울/철회/회피(Depression/Withdrawal/Avoidance), 불안과다 각성(Anxiety/Hyperarousal)-Hyper-alertness, 우울 반추/침범(Depression /Rumination/Intrusion)-Generalized Anxiety,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ts)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SC는 전체 점수를 참조하여 단일 척도로 사용된다.

SC는 지난 몇 주간 열거된 총 20개 문항(예: 우울한 기분, 식욕부진 혹은 체중감소)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4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혀 없음(0점)에서 매우 자주(3점)로 총 점수의 범위는 0~6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Bartone 등(1989)의 연구에서 보고한 SC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93이었고, 이 연구에서 우울/철회/회피, 불안/과다각성, 우울/반추/침범, 신체적 호소의 신뢰도는 .72, .78, .46, .69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Provision Scale: SPS)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Cutrona와 Russell(198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Provision Scale: SPS)를 두 명의 이중 언어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번안하여 1인의 상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SPS는 총 24문항으로 사회 지지망의 질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12개의 역척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질문지의 점수범위는 24~96을 가지며 내적 일치도는 .85 ~.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92로 신뢰로운 편이다. SPSS는 6개의 하위 척도로 애착(Attachment), 사회적 소속감(Social integration), 돌봄의 기회(Opportunity for nurturance), 가치 재인정(Reassurance of worth), 도움에 대한 믿음(Reliable alliance), 조언(Guidance)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의 신뢰도는 위의 하위척도 각각이 Cronbach's α .63, .58, .36, .72, .79, .80이었다.

자기은폐 척도(Self Concealment Scale: SCS)

자기은폐에 관한 질문지는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Larson과 Chastain(1990)의 자기은폐 척도(Self Concealment Scale: SCS)을 장진이(2001)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했다. SCS는 총 10문항으로 자신의 은폐 정도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arson과 Chastain(1990)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4주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다

자기은폐 척도는 원래 2개 요인, 즉 제 1요인인 자기와 관계된(self-directed) 비밀의 은폐(개인 은폐: 예: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추는 편이다.)와 제 2요인인 자기와 꼭 관련되지 않은(not necessarily self-directed) 비밀의 은폐(비밀

유지; 예: 나의 비밀은 너무나 은밀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묻는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두 하위요인, 개인 은폐와 비밀 유지의 신뢰도가 각각 Cronbach's α .77과 .82이었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Cash와 Begley, McCown, Weise(1975)에 의해 개발된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을 Vogel과 Wester(2003)가 4점 Likert로 수정한 질문지를 다시 신연희(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이 열거된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싶을지를 6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ISCI는 최근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여러 연구에 사용되었다(예: 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질문지에 실린 문제들은 대인 관계문제, 우울, 개인적인 걱정거리, 약물복용문제와 같은 것이다. ISCI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향을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는 17~68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에서 보고된 ISCI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95로, 이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 약물복용문제, 학업문제, 심리적/대인관계 문제 각각의 신뢰도가 .64, .68, .85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과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성인 애착 척도와 자기은폐 척도, 심리적 불편감 척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중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는 Cutrona와 Russell (1987)이 개발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ECRS(1), SCS(2), SC(3), SPS(4), ISCI(5)의 조합은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4-5)와 B set(5-4-3-2-1)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성별이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와 AMOS 4.0에 의해 처리되었다. 성인 애착(애착 불안과 회피애착)이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변수(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1은 Vogel과 Wei(2005)가 개발한 성인애착(불안애착과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심리적 불편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 검증모형에 자기은폐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은폐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은폐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 영향과 더불어 애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하는 구조 모형이다. 위의 두 모형은 AMO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구조모형 (그림 1)

연구결과

기초통계결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불안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는 일부는 정적 상관으로 일부는 부적 상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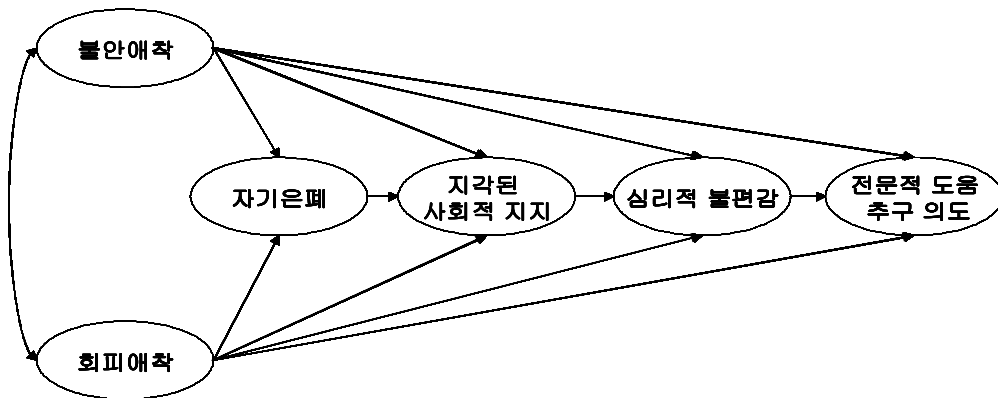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

표 1

KCS I

보인다. 불안애착은 자기은폐/심리적 불편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회피애착은 자기은폐/심리적 불편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는 정적 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는 부적 상관,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 자기은폐는 심리적 불편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모형

이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두 구조 모형(모형 1은 Vogel과 Wei(2005)가 개발한 심리적 불편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 및 자기은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모형 2는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애착이 지각된 사

표 3. 모형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	Δdf	결정
모형 1 vs. 모형 2	100.21	2	기각(.01수준)

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χ^2 차이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은 562.32와 462.11로 두 모형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여기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절대적합도 지수(Goodness-of-fit-measure)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합도 지수의 일종으로 .05이

표 2.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30)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 1 (경쟁모형)	562.32	179	.000	.980	.985	.081(.073-.088)
모형 2 (가설모형)	462.11	177	.000	.985	.989	.070(.062-.078)

하이먼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0.08이하에서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Browne & Cudeck, 1993), 최근에는 .06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모형 1.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모형)의 χ^2 는 .980, CFI는 .985이므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RMSEA는 .081(90% 신뢰구간 .073 -

.088)로서 합리적 모형으로 해석되는 .080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쟁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각 경로계수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애착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 회피애착에서 심리적 불편감으로 가는 경로와 회피애착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도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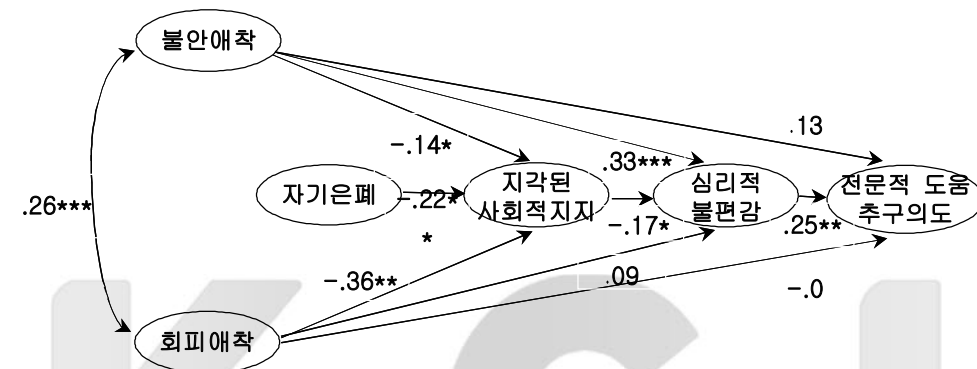


그림 2 경쟁 모형

$N=33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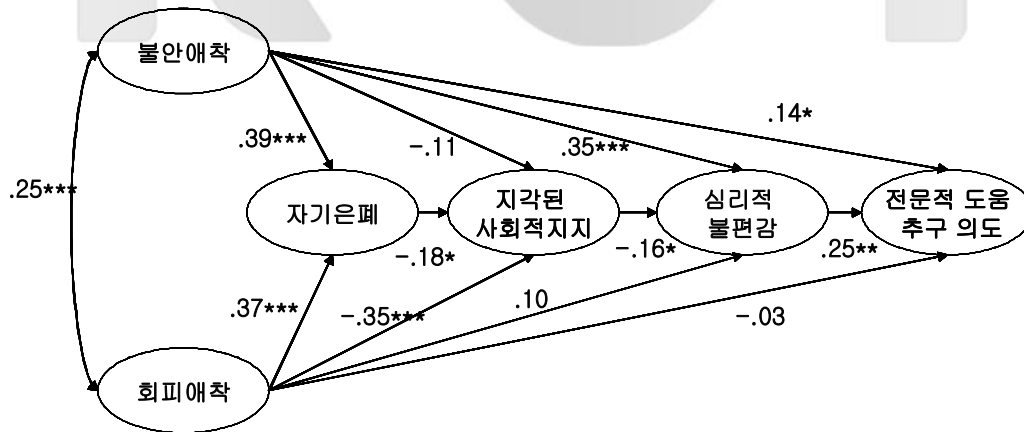


그림 3. 가설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N=33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 2.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모형)의 TL는 .985, CFI는 .989이므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RMSEA는 .070(90% 신뢰구간 .062 - .078)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가설화된 구조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계수는 불안애착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와 회피애착에서 심리적 불편감으로 가는 경로, 회피애착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도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은 내재적 관계에 있으므로 χ^2 차이검증 결과를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인 자기은폐가 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는 모

형과 경쟁모형으로 채택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상정하지 않은 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및 χ^2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χ^2 차이검증치가 유의미하므로 보다 복잡한 모형인 모형 2가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적합도 지수 비교결과 경쟁모형(모형 1)보다는 가설모형(모형 2)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게 나타났고 두 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포함된 구조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된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변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 경로계수(가설 모형 2)

경로계수		추정치
불안애착	⇒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034* (14)
불안애착	⇒ 자기은폐	.478*** (39)
불안애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061 (-11)
불안애착	⇒ 심리적 불편감	.183*** (35)
회피애착	⇒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007 (-03)
회피애착	⇒ 자기은폐	.368*** (37)
회피애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152*** (-35)
회피애착	⇒ 심리적 불편감	.043 (10)
자기은폐	⇒ 지각된 사회적 지지	-.079* (-18)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심리적 불편감	-.154* (-16)
심리적 불편감	⇒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12** (25)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계수임

* 은 $\alpha=.05$ 수준, ** 은 $\alpha=.01$ 수준, *** 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표 5. 관찰변인의 요인계수 (가설 모형 2)

측정변수	비표준화된 요인계수	표준화된 요인계수
불안애착		
불안애착1	1.00*	0.784
불안애착2	1.11*	0.855
불안애착3	1.05*	0.764
회피애착		
회피애착1	0.904*	0.844
회피애착2	0.873*	0.803
회피애착3	1.00*	0.898
자기은폐		
개인은폐	0.996*	0.903
비밀유지	1.00*	0.813
심리적 불편감		
우울/철수	1.630*	0.754
불안/각성	1.857*	0.742
우울/반추	1.00	0.731
신체적 호소	1.491*	0.744
지각된 사회적 지지		
애착	1.00	0.832
소속감	0.855*	0.776
돌봄	0.507*	0.525
가치	0.675*	0.607
믿음	1.118*	0.894
조언	1.184*	0.902
전문적 도움추구의도		
약물복용	1.00	0.436
학업문제	1.582*	0.458
대인관계	10.461*	1.221

*은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Vogel과 Wei(2005)의 연구에서 선정한 모형(모형 1: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이 매개역할)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모형(모형2: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이 매개역할)을 설정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 및 χ^2 차이검증 결과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형2의 적합도가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변인들의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불편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자기은폐를 추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매개모형보다는 자기은폐를 추가한 모형이 더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Vogel과 Wei(2005)의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한 구조모형의 결과와 같은 연장선상에 놓인다. 또한,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연구에서 불안-양가 성인 애착 집단이 지닌 높은 우울수준을 낮추는데 있어서 다른 애착 유형 집단보다도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된다는 결과(고은정, 1996)와도 일치하고 있다. 애착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표 6. 잠재변인간 상관(가설 모형 2)

	1	2	3	4	5	6
1. 불안애착	-	0.18**	0.39**	0.35**	-0.26**	0.32**
2. 회피애착		-	0.4**	0.21**	-0.43**	0.07
3. 자기은폐			-	0.34**	-0.36**	0.26**
4. 심리적 불편감				-	-0.25**	0.41**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	-0.15**
6.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

N = 330, ** p < .01(양방향)

에서 애착의 질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김수진, 2001).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은 성인 애착(불안애착과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에 잠재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낮추게 된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불안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에 직접적인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불안애착과 심리적 불편감 간에는 직접적으로는 정적관계가 나타나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로 연결되어,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증가시키게 되어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

에 직접효과와 회피애착과 심리적 불편감 간에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피애착 경향의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를 꺼리고, 심리적 불편감을 느낀다고 해도 전문적 도움 추구와는 연결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이는 전문적 도움 추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애착이론과 일치하는데 높은 수준의 불안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장해서 경험하게 된다. 반면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직접효과와 회피애착과 심리적 불편감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피애착의 사람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실사 경험한다고 해도 상담을 찾는 것과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사람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하는 데 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애착성향에 주의를

기울여 호소문제를 들을 때 이를 감안하고 특히 불안애착내담자의 경우는 과장된 어려움에 대한 지각을 잘 버텨주는 것이 필요하다하겠다.

둘째, 도움 추구에 관한 애착 유형들 간의 차이 확인에 부가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은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경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은폐의 경향이 높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심리적 불편감과 부적 연관되어 불편함을 많이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에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심리적 불편감을 크게 경험하면 전문적 도움추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불편감에 먼저 영향을 주고 이는 도움 추구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추구의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논의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중요함을 시사한다(Cramer, 1999).

셋째, 성인 애착과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정 애착과 자기은폐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고, 자기은폐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고,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안애착과 심리적 불편감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고, 회피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애착에 따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없다는 개인의 믿음, 타인에 대한 기대, 지극히 내적인 자기문제은폐 등의 변인들이 전문적 상담을 찾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오게 되었을 때,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결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시사한다.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하는 결정은 애착 유형별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심리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담에 오게 된다. 불안애착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상담에 올 수도 있고,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어 전문적 도움을 원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자기은폐가 높음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상담에 올 수도 있다. 반면 회피애착은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기대하지 않고, 또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은 부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지지에 대한 결핍이 심리적 불편감을 어느 수준까지 증가시킨다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는 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통계학

적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가 비록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하지만 종단 연구나 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혀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척도 중의 돌봄의 기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돌봄의 기회가 단독으로 잠재변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지표(indicator)중에 하나로 모형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외국자료를 직접 번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제한점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하위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이 연구는 전적으로 자기 보고식 방법의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가능하다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의도는 미래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 도움 추구 결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진 (2001).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91-1002.
박은영 (2004). 여고생이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연희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이경희 (2001).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tholomew, K., & Shaver, P. R. (1998). Methods of assessing adult attachment: Do they converge? In J. A. Simpson &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25-45). New York: Guilford Press.
- Bartone, P. T., Ursano, R. J., Wright, K. M., & Ingraham, L. H.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317-328.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273-279.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Cutrona, C. E., & Russell, D. W. (1987).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s to stress. *Adva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1, 37-67.
- DeFronzo, R., Panzarella, C., & Butler, A. (2001). Attachment, support seeking, and adaptive inferential feedback: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health. *Cognitive and Behavior Practice*, 8, 48-52.
-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 Goodman, S. H., Sewell, D. R., & Jampol, R. C. (1984). On going to the counselor: Contributions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s to the decision to seek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06-313.
- Hazan, D. E.,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son, J. A., & Swanson, J. L. (1993). Willingness to seek help as a function of self-disclosure and problem seve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446-470.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Lin, Y. (2002).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conceptions of counseling.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1, 199-211.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1.
- Lopez, F. G., Mauricio, B., Gormely, B., Simko, T., & Berger, E.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459-464.
- Lopez, F. G., Melendez, M. C., Sauer, E. 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 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79-83.
- Lopez, F. G., Mitchell, P., & Gormely, B. (2002). Adult attachment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0-467.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 Mikulincer, M., & Erev, I. (1991). Attachment style and the structure of romantic lov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73-291.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ikulincer, M., &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Norcross, J. C., & Prochaska, J. O. (1986).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elf-change of psychologists, counselors, and laypersons. *Psychotherapy*, 23, 102-114.
- Pescosolido, B. A., & Boyer, C. A. (1999). How do people come to use mental health services? Current knowledge and changing

- perspectives. In A. V. Horwitz & T. L. Scheid,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pp. 392-4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s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57.
- Powell, G. N., & Kotschessa, B. (1995). Factors that influence professional employees'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Psychological Reports*, 77, 872-874.
- Priel, G., & Shamai, D. (1995).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s on affect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235-241.
- Robbins, J. M., & Greenley, J. R. (1983). Thinking about what's wrong: Attributions of severity, cause, and during in the problem definition stage of psychiatric help-seeking.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209-232.
- Sarason, I. G., Pierce, G. R., & Sarason, B. R. (1990). Social support and interactional processes: A triadic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495-506.
- Simson, J. A. (1990).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touffer, S. A., Cuttman, L., & Suchman, E. A. (1950). *Studied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Measurement and prediction*(V. 4).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7-357.
- Wallace, J. L., & Vaux, A. (1993). Social support network orientation: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54-365.
- Wei, M., Heppner, P., & Mallinck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38-447.
- Wei, M., Mallinckodt, B., Russell, D. W., & Abraham, T. W.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원고접수일 : 2006. 3. 1

수정원고접수일 : 2006. 4. 23

게재결정일 : 2006. 5. 2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 Conceal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Young- Ran Yoo

Ewha Women's University

Jee -Yon Lee

University of Inche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self conceal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both individuals with attachment anxiety and individuals with attachment avoidance concealed the personal information in a high level, which negatively contributed to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Their perception of a lack of social support then negatively contributed to their experience of distress, and their distress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ir help-seeking intention.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help-seeking intention, psychological di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 concealment*